



지난 2월 한국 미술 관련 특별 강연에서 미술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딜러. [로버트 딜러 제공]



코리안아트소사이어티 회원들이 박물관 투어를 하고 있다. [로버트 딜러 제공]



KAS at Museum of Fine Arts: 보스턴 뮤지엄오브파인아트(Museum of Fine Arts)에 방문한 딜러(가운데)와 코리안아트소사이어티 멤버들. 매년 2-3차례 미국 전역의 박물관을 돌며 한국 미술품을 찾는다. [로버트 딜러 제공]

## “영어로 된 자료 태부족 ... 한국 미술 알리려 소사이어티 설립”

### - 코리안아트소사이어티 설립 계기는.

“한국 미술에 대한 정보와 홍보가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 때문이었다. 한국 미술과 강한 첫만남 이후 혼자 계속 공부를 해 왔는데, 영어로 된 자료가 거의 없어서 애를 많이 먹었다. (한국 미술이) 굉장히 비밀처럼 남아 있는 인상이었다. 결국 한국 미술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, 정보가 필요한 것을 발견해 2008년 코리안아트소사이어티를 설립했다. 우리 멤버 중 상당수는 재패니즈소사이어티 회원이기도 하다. 보통 아시안 미술 학자들인데, 우리 웹사이트를 통해 몰랐던 사실을 비롯해 찾을 수 없었던 정보를 많이 찾게 된다고 말해준다.”

### - 어떤 방법으로 한국 미술을 알리려 할 지.

“한인 커뮤니티 안에서 한국 미술을 알리기 위해 뭉치는 일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. 가만히 보면 같은 미션을 가지고 일하는 단체인데, 다 따로 일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된다. 함께 뭉치면 더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어렵다. 꼭 개인 플레이를 하거나 경쟁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다. 한국 사람들 사이에 협력이 부족한 게 아쉽다. 우리 웹사이트의 경우 구글에서 ‘코리안 아트’로 검색하면 맨 위에 등장할 정도로 많이 노출된다. 그런데 한국 미술 관련 단체들과 함께 링크가 걸려있으면 좋을 텐데, 오히려 재패니즈소사이어티와 링크를 공유한다. 다른 한국 커뮤니티 웹사이트와 왜 연결되지 않는 것인지... 최근에 아트 게이트갤러리를 비롯해 첼시 한국 갤러리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고 매년 하던 코리안아트쇼도 안 한다. 딜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판매 문제였던 것이라고 한다. 한국 정부에서 수백만 달러 예산을 쓰긴 하지만 결과가 너무 안 좋질 않나. 무엇보다 작가들이 부푼 마음을 가지고 뉴욕에 와서 실망하는 모습들을 보면 너무 안타깝다. 그렇다고 너무 부정적인 부분만을 보는 건 아니다, 난 상당히 긍정적인 사람이다. (웃음) 더욱 뭉치고 힘을 모아 행사를 열고, 네트워킹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.”